



멕시코, 트럼프 압박에 보복관세로 맞 대응 방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표에 멕시코 정부는 '보복관세'로 맞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멕시코 경제장관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하면 미국 일자리 40만개가 줄어들면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맞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는 "마약류 유입과 불법 이주민들의 입국을 막을 때까지"라고 단서를 달아 그의 발언이 사실상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향한 압력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가 "GM, Stellantis 및 Ford와 같이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활동을 해 온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모두 빼앗아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말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멕시코로 들어오는 부품들에 고율의 관세로 맞대응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할테면 해보라"는 멕시코 정부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부품들



미국에서 만들어 멕시코에서는 조립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자충수 입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물리게 될 경우 멕시코 정부도 똑같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 할 경우 관세는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은 여기에서 모두 상쇄되어 '이익 제로'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결국, "25%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며 미국에서 약 400,000개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분석가들도 멕시코나 캐나다의 모든 차량이나 콘텐츠에 대한 일괄 25% 관세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의 협박성 발언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어 멕시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오히려, 2026년 재검토 예정인 USMCA 자유무역협정의 3개 서명국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위한 '분할인가' 공동구축인가?"를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보복은 보복을 낳으므로 갈등과 분열이 아닌 강력한 지역을 만드는 데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발언 이후 Sheinbaum 대통령도 "관세 인상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에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맞 대응의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주 화요일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을 공개하면서 "해당 국가의 이민 현상이나 마약 소

비 문제는 위협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미의 경제적 힘은 우리의 상업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대화는 양국의 이해,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곧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 영토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민자들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정책들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미국 연방 관세국경순찰대(CBP)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가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75% 감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도착하는 이주민들도 절반은 미국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민자 캐러밴은 더 이상 국경에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멕시코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멕시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원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미국이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일컫는 듯)에 할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이라도 평화와 발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면 사람들의 이동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말로 미국 정부를 꼬집었다. (2면에서 계속)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20.01	살 때	1,419
팔 때	21.10	팔 때	1,371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내년 예산 9조 3천억 페소로 올해보다 1.9% 감소

멕시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하원 예산소위와 하원을 통과했다. 총 9조3천억 페소로 올해보다 1.9% 줄어든 규모다. (\$9,302,015,800,000)

2025년 지출 예산 하원 통과, 상원 심의만 남았다.

지난주 하원 재무위원회 (Comisión en San Lázaro)는 2025년 연방법과 소득세법을 찬성 22표, 반대 10표로 승인하고 두 예산안을 의회 본회의로 넘겼다.

하원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찬성 367표, 반대 95표로 예상대로 무난히 통과됐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후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상원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예상과 달리 올해 (2024) 9,066,045,800,000페소보다 1.9% 줄어들었는데 현 정부의 고강도 긴축 예산안에 따라 대부분 부처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하원을 통과한 2025년 예산안은 절반이 세수에서 확보하게 되는데 부가세에서 1.4조, 소득세 (ISR/Impuesto Sobre la Renta)



에서 2.8조, 소비세 (IEF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에서 7천억 페소 등 총 5.3조 페소가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익이다.

이외, Imss와 정부로 들어오는 각종 수수료 등이 모두 세수에 포함되어 정부 재정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정부 예산안이 가감없이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총 \$9,302,015,800,000페소 가운데 정부 자치기관에 168,781,648,704 페소, 각 정부 부처에 2,123,322,482,482,057 페소가 배정되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8억 7천7백만페소 국방부에 1,519억9천4백만페소, 외무부에 92억9천4백

만페소, 인프라 및 통신, 교통에 1407억9천9백만 페소가 배정되었다. 대부분의 부처가 예산 삭감이 이루어 졌지만 복지예산은 올해 567억페소에서 내년도에 579억8천3백만 페소로 2.3%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곳은 국방부(세데나/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로 올해 2천5백억 페소에서 내년에는 1천

5백억 페소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농업, 영토 및 도시 개발부로 3천8백만 페소의 내년 예산이 배정되었다.

최종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하면서 확정되는데 멕시코는 매년 11월중에 예산안이 결정되면 내년 1월2일부터 공식적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1면에 이어..

셰인바움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멕시코군과 검찰이 마약 밀매와 관련된 폭력 혐의로 수많은 종류의 마약과 10,340개의 무기를 압수했으며 15,640명을 구금했다"면서 "멕시코에서는 펜타닐과 기타 합성 약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을 보석금이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헌법 개정이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다"는 말로 멕시코 정부의 마약조직 소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무기 밀매에 대해서도 멕시코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무기의 70%는 미국산 이라

면서 우리는 무기를 생산하지 않으며, 합성 약물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당선자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는 미국 국내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국경을 맞대고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제 실행여부는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압력성 발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멕시코는 미국 정부에 비해 을의 입장에 놓인 것은 분명한 만큼, 이주민 차단과 마약조직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내놓아 국익에 부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파트 임대 (90m2, 27평형)

위치: Reforma 222

月\$26,000 (관리비 별도)

- 수니루시 Reforma 222, 거주하기에 최상의 위치
- 침실 2개, 시서 1개, 욕실 1개, 거실, 주방
- 세탁기, 건조기 구비
- 고시숙의 정원 같은아파트, 훌륭한 전망
- 수영장, 테니스장, 파티룸, 체육관, 사우나 및 스키룸
- 미시지, 주깁 트랙, 놀이공원 및 비즈니스 센터
- 주차장 1개, 경비 24시간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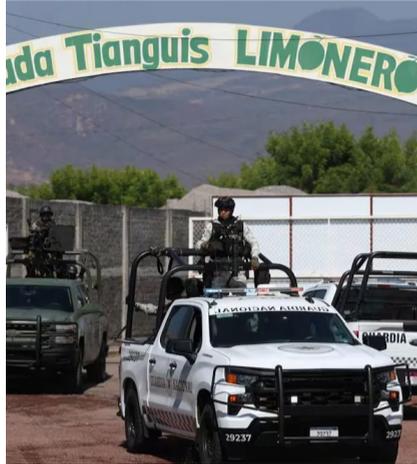
이메일: Carlos Rodríguez

핸드폰: 55-1948-2853

멕시코, "군인 없으면 농작물 수확도 못한다"

리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작물에 대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지역 갱단들의 협박에 농부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군인들이 배치되어 지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제 멕시코 대부분 지역의 농작물은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갱단들에 의해 하나의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부들에게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가는데 보복이 두려워 항거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일 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Limon과 Aguacate로 유명한 멕시코 중부 지역 '미초아칸' 인데 이곳에는 이미 대규모의 군인들이 파견되어 농장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지키며 안전한 수확을 돕고 있다.

이 지역에는 방위군, 육군 및 지역 공간이 연합하여 약 1000여개 요소를 만들어 Michoacan의 Tierra Caliente의 6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인 신세대 카르텔(CJNG)은 이 지역의 레몬 생산자 3,000명 이상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강탈해 왔었다.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작전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확부터 운송까지 농작물 수확의 전과정에 군인들이 투입되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 경찰과 지방 경찰이 협력해 지역갱단 66명을 체포했으며 이과정에서 무기, 마약, 탄약통이 압수됐다.

특히, 갱단들은 포장공장을 차려놓고 생산된 리몬을 자신들의 공장으로 가져오도록하여 포장비와 별도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업가 행세로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산된 레몬을 도로로 운송하려면 '안전통행' 이라는 명목으로 1톤당 요금을 또 부과하고 있는데 대략 이 금액을 합치면 생산된 리몬 1kg당 약 2페소가 이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리몬 도매가격이 7페소에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상 수확물에 대해 30%를 강탈하고

있는 셈이다. 육군과 방위군이 배치된 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연간 856,700톤의 레몬을 생산하고 있으며 3,491개의 생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철만 되면 매년 되풀이 되는 갱단들의 협박에 이제는 군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농작물 수확조차 힘들어지게 된, 현재의 멕시코 농촌 모습이다.

멕시코 10월 수출 수익 11.2% 증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의 수출이 지난 10월에만 11.2%, 2024년 첫 10개월 동안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계청 INEGI는 멕시코 수출이 10월 미화 576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9월에 비해 3.55% 증가한 수치다.

1월부터 10월까지 멕시코의 수출 수익은 5,133억 8천만 달러였다.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올해 첫 10개월 동안 수출 가치가 연간 4% 증가한 것으로 올해 멕시코는 기록적인 수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멕시코의 수출액은 5,930억 달러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기록 갱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멕시코의 수입액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년 4% 증가해 5,240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 멕시코의 수출입에 관한 최신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재임 첫 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미국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TU LICENCIA, UN MUNDO DE POSIBILIDADES.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세금 안내도 구금하는, 재판전 구금 확대에 '인권침해' 우려

세금을 제때 안내도 구금이 가능한 새로운 법안이 멕시코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악의적인 세금 포탈이라면 명분이 있지만 자칫하면 실수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구금'이 가능해져 인권침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정되는 법안대로라면, 자칫하면 정부는 세금 징수 목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모레나당은 이번 주에 향후 2년 동안 사법부 구조 조정과 함께 4T 정부가 세금 징수 목표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동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헌법 개혁 법안의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9조를 개정하여 판사가 세금 사기, 밀수, 허위 세금 영수증 사용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 없이 원칙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재판 전 구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前대통령이 올해 초, 특히 2월 5일 제헌 기념일에



발표한 강력한 헌법 개혁 패키지의 일부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입법부 이후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과했으며 표결을 위해 하원 본회의에서 둘러 상정될 수 있다. 갓 출범한 현 정부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수정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무엇보다도 선거 공약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재판 전 자동 구금에 대한 정의는 모레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하원의 몬레알 당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 사기 범죄는 매우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많은 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대로 법안이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연히 반대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은 미주 인권 재판소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멕시코 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들은 비공식적인 재판 전 구금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피고인에게 헌법상 의무로 규정된 경우 사법당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개혁이 아니더라도 멕시코에서 재판 전 구금은 지금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비판받고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23만 3

천 명 중 37%인 8만 6천여 명이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이 중 절반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2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19조 개정 초안에서는 이 새로운 '자동 재판 전 구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심각한 범죄, 즉 갈취, 마약 거래 및 펜타닐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수로 세금 납부를 잊은 사람조차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재정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현재의 내용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 거두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 넣겠다는 협박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세력의 일방 독주 입법이 붓물을 이루고 있지만 마땅히 견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카톨릭 국가 멕시코 낙태 합법화가 대세, 치아파스 의회도 동참

아직도 보수적인 환경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인 치아파스(Chiapas) 의회가 낙태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승인한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제(화요일) 정기 회의에서 치아파스 주 의회는 헌법 제4조의 개정을 승인하여 생명의 법적 보호를 수태로부터 나타내는 조항을 주 헌법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주 헌법은 수태와 동시에 생명체로 인정하며 낙태를 금지했는데 이 조항을 태어난 경우로 수정한 것이다.

의회 승인으로 현재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적 잠금 장치가 제거되면서 임신한 사람이 임신 중절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즉, 헌법에 명시되었던 '낙태금지'가 이제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를 허용하도록 형법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는 임신한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오랜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 각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인권보장'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낙태 합법화'가 대세

를 이루고 있다.

전국 32개 주 가운데 현재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절반에 가까운 멕시코시티를 포함, 16개 주에 이른다.

낙태 합법화가 된 주는 다음과 같다.

Mexico city, Oaxaca, Hidalgo, Veracruz, Coahuila, Baja California, Colima, Sinaloa, Guerrero, Baja California Sur, Quintana Roo, Aguas Calientes, Jalisco, Puebla, Michoacan, Chiapas

대리모 천국 멕시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인식 팽배

멕시코에서는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가 목돈을 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년 참여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베로니카(Veronica)는 다섯 번 임신했다. 두 차례에 걸쳐 그녀는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 세 명의 아기를 낳았다.

그녀는 2018년에 중국인 쌍둥이 딸을 낳았고, 3년 후에는 미국 여자 아이를 낳았다.

세 번째 임신 중인 나탈리(Nathaly)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았는데 마지막에 낳은 아이는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외국 가족이 부모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멕시코인 여성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한 경우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현재, 대리모 관련 법규정이 있는 곳은 멕시코 전체 32개 주 중 타바스코(Tabasco)와 시날로아(Sinaloa)주 두 곳 뿐이다. 나머지 30개 주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사실상 합법이다.

위탁 출산을 의뢰하는 부부나 10개월 동안 몸을 빌려주고 아이를 대리 출산하는 여성이나 모두 상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대리 출산과



정에서 산모의 건강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대행사(브로커)는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불임부부의 의뢰를 받고 대리모를 수배하여 계약을 한다. 이런 이유로 임신 도중이나 출산과정에서 유산을 할 경우 지불 방법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피해를 당할 경우 고스란히 산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리모 출산에 나서는 여성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목돈을 쥌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대리모 출산을 희망하고 있다.

통상, 이들이 받는 대리모 출산 비용은 25만페소에서 30만 페소인데 가격에는 아이의 성별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만약, 쌍둥이를 낳을 경우 금액이 추가되어 40만

페소에서 45만 페소까지 받게 된다.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리모 조건도 있다. 최소 1회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며 나이는 18세~36세로 성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여성이면 가능하다. 단순히 몸만 빌려주는 것으로 지적 능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선정된 여성은 일련의 심리 테스트를 통과하여 임신 과정과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도 확인하게 된다. 모집은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가장 많이 의뢰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인 의뢰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리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기관인 멕시코 대리모법의 법률 이사인 Ana

María Gómez Moreno에 따르면, 대리모의 사기행위도 심심찮게 불거지는데 의뢰인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즉, 대리모나 의뢰인 모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임부부들의 대리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찾는 경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대리모에 응하는 멕시코인 여성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돈 때문이다.

특히, 임신기간동안 좋은 병원에서 품위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도 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든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9개월 동안 임신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면서 임신부는 일상생활을 계속한다.

퇴원 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아이는 부모에게 인계되며 변호사를 통해 출산한 유아의 출생 등록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멕시코 법원의 위기, 사법부 조기 퇴직 300% 증가

사법부 개혁을 목적으로 여당에 의해 추진된 '개혁 법안'에 반발해 판사들의 자진퇴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맹 사법부(PJF)의 판사 및 치안 판사의 퇴직은 2023년에 30명에 비해 3배 증가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21명이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 증가는 연방 관보(DOF)에 올해 9월 15일 발표된 사법 개혁 중 순회 치안판사, 지방 판사 및 대법관을 모두 대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까지 820명의 판사가 내년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법안대로라면 퇴직 후 연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사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법관들의 퇴임 후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수와 기간을 크게 줄였는데 지금 사퇴하는 것으로 이전 법을 적용

받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십 명의 법관들이 사법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정치적 박해로 연결되면서 공직을 떠나기도 한다. 특히,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중간급 판사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5년과 2027년 8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퇴직하기로 결정했는데 평균 법관 경

력은 15년이다. 이외, 1,800명의 판사와 치안판사의 대다수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현행 법상 멕시코 법관의 정년은 대법관은 15년이다.

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는 75세까지다.

35세부터 법관 임용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40년간 판사직에 머물수가 있다. 법관의 임기는 새로운 개혁법안에도 큰 변동은 없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도 15년에서 10년을 줄어들었다.

정부 위원회 폐지는 대통령 가족 건드린 죄?

멕시코 정부가 연방정부 소속 위원회 폐지 방침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총 7개 위원회를 폐지 하거나 관련 부처로 통합 시킨다는 것인데 해당 위원회는 물론 언론도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INAI (Instituto Nacion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국립 투명성, 정보 접근 및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 소속인원 818명

2. COFECE (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 연방경제경쟁위원회, 499명

3.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연방통신 연구소, 1428명

4. CONEVA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Políticas de Desarrollo Social)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협의회, 6명

5. CRE (Comisión Reguladora de Energía) 에너지규제위원회, 137명

6. CNH (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국가탄화수소 위원회, 위원 7명

7. MEJOREDU (Comisión Nacional para la Mejora Continua de la Educación) 국가 교육위원회, 6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INAI로 '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다.

이전 정부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퇴임하면서 현 정부로 과제가 이월된 경우인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Claudia Sheinbaum) 현 정부도 폐지에 적극적이다.

특히,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 INAI의 폐지를 두고 전 대통령의 성인 세 자녀의 비리와 권력 남용, 이해상충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nai(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 덕분에 미국 휴스턴에 Jos Ramn Lpez Beltrn이 살았던 저택인 Casa Gris를 소유한 계약 회사가 대통령 아들을 위해 집을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야열차 공사 계약건, Dos Bocas 공사 계약건, Transtmico 및 의

약품 납품 등 연방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대형 사업에 개입하여 이 권을 챙겼다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Andy와 Bobby Lpez Beltrn(EI Clan)의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前 대통령의 성인 세 자녀의 비리와 권력 남용, 이해상충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 Inai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번 폐지는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관이 폐지될 경우 정부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핵심 위원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층의 부패가 더욱 비밀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ai가 시민, 학계, 연구자 및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대통령의 자녀들이 각종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불투명성, 책임 회피, 어둠 속에서 거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려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현 정부는 비대한 조직과 성과 없는 위원회, 그럼에도 고임금을 받는 위원들에 대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경하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통, 폐합하면서 같은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nai를 제외하면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위원회는 비대한 조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고액의 임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어 마냥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위원회를 폐지 한다는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Inai(국가 투명성 정보 위원회) 문제는 정부의 긴축 정책도 아니고 예산 초과를 삭감하는 것도 아니라 복수 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전 전 정부인 칼데론의 6년 임기중에서 부패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보안장관 가르시아 루나의 계약 등 많은 부패 사건이 모두 정보 공개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폐지 방침은 명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 기관은 모두 헌법상 기관으로 상, 하원의 의결로 폐지가 결정되는데 현재 양원 모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가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멕시코에서 일할 쿠바 의사 199명 입국

거의 200명의 쿠바 의사들이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멕시코의 외딴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신공항(AIFA) 입국했다.

이미, 멕시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2500명을 포함하면 총 2,700여명의 쿠바의사가 멕시코에 상주하고 있다.

이번에 도착한 쿠바의사는 내과, 소아과, 응급 의학을 포함한 29개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멕시코내 24개 주의 외딴 지역 사회에서 의료지원에 나서게 된다.

지난 7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s Manuel Lpez Obrador 정부



(2018~2024) 기간 동안 쿠바 대통령 미구엘 디아스 카넬 (Miguel Daz-Canel) 내각과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수천 명의 쿠바 의사들이 소외된 농촌 지역에 위치한 282개 지역사회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Sheinbaum 현 정부도 "멕시코

와 쿠바는 자매국"으로 평가하면서 쿠바 정부와 맺은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쿠바 의사들의 멕시코 진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멕시코에서 쿠바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상원의원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소치를 같

베스(Xchitl Glvez)는 출마 당시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더 이상 쿠바 의사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멕시코 국내에서 외국 의사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정부는 "멕시코의 의사 수가 주민 천명당 2.4명으로 라틴아메리카 평균 2명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3.5명보다는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정당화 했다.

멕시코의 전체 의사수는 377,000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5,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의는 2,500명, 전문의는 12,500명이다.

멕시코 도로 중 상태가 양호한 곳은 13%에 불과

멕시코 도로는 상태가 안 좋기로 악명(?)이 높다. 노후화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 자원의 감소가 결정적인 이유다.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마야 열차의 자재 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25년 경제 패키지 동기 설명에서 제시된 진단에 따르면 지선 및 농촌 도로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266,598km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03,217km가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로 및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 대해 실시한 1차 진단에 따르면 13%는 양호, 48%는 보통이고 나머지 39%는 열악한 것으로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악화의 이면에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공공 투자 감소와 인프라 통신 교통부(SICT) 내 활동 감소"를 꼽고 있다. SICT의 헤수스 에스테바

(Jesus Esteva) 위원장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달 초 도로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바체톤(Bacheton)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바체톤은 이번주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불량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데 국가공안시스템 사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부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사건이 매일 평균 150건씩 접수되었다.

이는 2015년을 시작으로 비슷한 기간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이래 최대 기록으로, 이후 사고가

55% 증가한 것이다.

전국 민간 교통 협회(ANTP) 이사회 회장인 Alex Theissen Long은 그는 "기업은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이라면서 "도로 부실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이 상당하다" 고 지적한다.

도로 파손은 대형 트럭의 과다적재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지역 조직범죄단의 도로 훼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멕시코는 국내에서 이동되는 상품의 56%가 도로와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도시간 이동에 사용되는 버스가 도로 이용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퇴임한 前대통령, 軍 경호 받으며 한 달 연금 21,000페소 받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前 대통령이 월 21,659 페소(약 1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의 사저는 軍이 경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치아파스(Chiapas)주 팔렌케(Palenque)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밝힌대로 임기가 끝나자마자 농장으로 내려갔다. 이 농장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 Chingada' 이름으로 알려진 농장의 주변은 경호를 위해 주변이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다.

자신도 전직으로 돌아갔지만 이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연금 수령액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당시 대통령은 "멕시코 전직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고 비판했



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연금이 상당한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칼데론 전 대통령은 연간 총연금 5,400만페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받은 연금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어, 폭스(Fox) 전 대통령은 최대 4800만페소, 세디요(Zedillo) 3,700만 페소, 카를로스 살리나스(Carlos Salinas) 4,200만 페소,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ia) 4,400만 등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받는 1년

연금 총액 26만 페소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경호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4월, 전 대통령은 보호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비센테 폭스(Vicente Fox) 전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 전 대통령 각각에게 8개의 보안 요소가 추가로 할당되기도 했다.

칼데론 히노호사(Calderon Hinojosa) 전 대통령은 경호 인력의 추가 파견의 이유를 편지로 설명했고 폭스 케사다(Fox Quesada)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현 X)에 무장괴한들이 과나후아토 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요청을 했었다.

Lopez Obrador 당시 대통령은 흑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여론이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 1인당 경호에 약 80명의 경호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퇴임한 AMLO 대통령은 재임시에도 경호를 최소화 하며 시민들과 '스킨십' 을 즐기는 것으로 자신의 지지세력과 동질감을 나타내곤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호평을 받기도 했다.

삼엄하고 권위적인 경호 틀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기 때문이다.

정권을 승계한 현 대통령 Sheinbaum Pardo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데 과감하게 격식을 버리고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조용한 경호는 전 대통령이 물려준 유산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멕시코 최대 만사니요 항구, 카르텔 협박에 "세관원 몸사린다"

마약 원료의 반입을 둘러싸고 항구 세관에 대한 카르텔의 위협으로 지금 만사니요 항구는 마치 전쟁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범죄 단체들은 연방군과 세관 직원들에게 멕시코 태평양에서 마약 원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반입을 두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제된 화학물질 전구체는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만사니요 항구로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기 위한 카르텔간의 경쟁이 세관원에 대한 엄청난 압력으로 이어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콜리마(Colima)의 만사니요(Manzanillo) 항구는 마약 카르텔의 주 수입원인 마약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반입이 당국의 감시 속에서도 부패한 세관원과 마약 조직간의 거래로 척결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등 합성 약물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원료 물질이다.

지난 10월부터 멕시코 최대 카르텔인 신세대(Jalisco Nueva Generaci3n/CJNG) 조직과 주변 지역을 장악한 Independente de Colima(Los Mezcales) 및 Sinaloa 카르텔간의 경쟁은 물론, 당국의 체포와 무기 압수에 대한 보복으로 해군과 주 경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보복에 나서



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항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활동 중에는 세관 직원에 대한 위협을 통한 협박과 협조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세관원이나 항구 근로자에 대한 항구 접근 차단까지 하고 있어 사태는 심각하다.

지난 주에는 차량을 타고 여행하던 중 살해된 페르난도 루벤 게레로 알칸타르(Fernando Rub3n Guerrero Alc3ntar) 해군 제독과 만사니요(Manzanillo)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선원을 살해했는데 이는 콜리마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안군을 향한 가장 수위 높은 폭력 행위였다.

앞서 언급한 범죄조직들은 보안군에 대한 공격과 함께 세관 직원에 대한 위협과 협박은 물론, 올해 만사니요 항구의 접근로를 막으면서 국가로의 상품 출입에 영향을 미친 일부 봉쇄의 배후도 모두 이들 조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단체들은 또한 집권 모레나당 소속인 Morenista Indira Vizca3no Silva 주지사가 통치하

는 주의 여러 지역에서 공개 처형과 시신방치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 관에 대한 강도높은 폭력행위를 자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만사니요(Manzanillo)와 빌라 데 알바레즈(Villa de Alvarez) 같은 지역에서는 차량 화재와 공공장소에서 시체 발견이 목격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의 심각한 폭력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자 해군을 투입하여 화학 원료 및 마약밀매 경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CJNG, Los Mezcales 및 Sinaloa Cartel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발생한 콜리마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이에따라, 해군과 지방 당국은 만사니요 항구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순찰하며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고의적 살인 범죄율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만사니요 항구가 피의 혈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항구를 통한 마약밀매 경로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Jalisco Cartel과 Colima Independent Cartel 간의 영역 분쟁에서 파생되었다. 현재, Manzanillo 항구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Campos, Centro, Colomos, El Naranjo, Fraccionamiento La Higuera, Las Huertas, Salagua, Santiago, Soleares 및 Valle Alto로 연방 및 지역 보안군이 투입되어 치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테코만(Tecom3n)과 아르메리아(Armer3a) 같은 다른 해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인 폭력이 크게 증가했다.

당국의 작전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카포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Capo Ismael El Mayo Zambada)의 주요 운영자 중 한 명인 La Alemana 또는 La G3ra 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Itania Noem3와 만사니요 항구에 있는 Jalisco Nueva Generaci3n Cartel의 수장인 Aldrin Miguel Jarqu3n(가명 El Chaparrito)를 체포한 경우다.

협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카르텔에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 협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부패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만사니요 세관원 국가 공권력이 아무리 투입이 되어도 현장 실무자의 부패로 인한 내부 붕괴는 막을수가 없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협조하지 않는 세관장도 살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사니요 항구는 지금 전문이 감도는 분위기로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성탄절 선물로 호언했던 주 40시간 근무(5일제), "올해는 물건너 갔다".

멕시코 산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전환이 법개정 미비로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하원 정책 책임자인 몬레알 아빌라(Monreal Avila)는 두 달 전에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언제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집권 모레나당의 하원 조정관인 리카르도 몬레알은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개혁이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근무일 단축을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할 날짜가 아직 계획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두 달 전에 장담할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야당도

이 문제를 진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노동 시간 단축이 여당의 최우선 과제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시기의 물제일뿐,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어터지는 후업계, 40개 브랜드에서 70개 브랜드 경쟁

멕시코 자동차 유통 협회 (AMDA)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44개 브랜드가 있었지만 현재는 70개 이상의 브랜드가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차량판매에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차의 거센 도전이 이 같은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데 가격을 최대 무기로 저돌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고급형 차량의 판매가 둔화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산이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멕시코 자동차 유통 협회 (AMDA)와 멕시코 통계청인 Inegi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중국 브랜드의 등장으로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 중 하나가 고급 자동차 시장이라고 밝혔다.

올해 1~10월 고급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1,780대인데 해당 기간에 매출이 가장 낮은 유일한 부문이다.

전통적으로 럭셔리 브랜드는 위기 상황이나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올해는 경쟁으로 인해 시장을 잃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 감소세 지속
1월부터 10월까지 벤츨리 -31%, 아우디 -20.3%, 스바루 -15.7%, 미니 -14.7%, 메르세데스 벤츠 -13%, 아큐라 -9%,



재규어 -3%, 랜드로버 -0.2%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진다.

소비자 데이터 회사 J.D. Power의 멕시코 총괄 책임자인 Gerardo Gomez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중국 브랜드 진입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다른 브랜드의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페라리(Ferrari)나 람보르기니(Lamborghini) 같은 브랜드는 1년에 1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슈퍼 럭셔리 세그먼트로 중국 브랜드와 경쟁하지 않는 유일한 기종이다.

그러나, 전기차 부분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BYD에는 고급 부문이 있고 Zeekr도 경쟁하고 있다. 가격은 BYD Tang 전기 트럭의 경우 130만 페소에 이르고 있으며 Zeekr의 X와 001 두 모델의 가격은 80만~100만 페소다.

이전에도 고급차 판매가 감소한 경우가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이다.

고급차 부문 판매량이 -33.7% 감소했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비

상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도 고급차 판매가 2007년에 비해 거의 2.1% 감소한 적이 있지만, 업체간의 경쟁으로 판매가 감소한 경우는 현재가 유일하다.

자동차 유통 협회의 기예르모 로살레스(Guillermo Rosales) 회장은 고급 자동차 판매 감소가 신흥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는 데 동의했다.

고급차의 평균 가격은 100만 13만 5천 페소로 2023년보다 15% 높은 수치다. 이 부문의 구매자는 높은 구매력으로 인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부류다. 즉, 고급 차량 구매자는 이미 구매를 결정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환율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의미다.

더 많은 경쟁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AMDA가 개최한 포럼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reat Wall Motor의 부사장 겸 총괄 이사인

Pedro Albarr n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도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에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 연합(EU)이나 미국보다는 멕시코 등 아직은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나라들에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멕시코는 이 가운데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의미가 있어 갈수록 중국업체들의 방문이 빈발해지고 있다.

한편, "브랜드가 너무 많다" 지적에 대해 "중국에는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다"면서 "같은 대륙 칠레에도 거의 100개에 달하는 브랜드가 있고 에콰도르에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로 어차피 경쟁은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업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멕시코 시장에서 차량 판매업계는 기존 시장을 고수하려는 측과 신규로 진입하려는 중국업체간 양분되어 있으며 시장 장악을 위한 경쟁은 저리나 무이자 등 각종 할부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결국 자금력에서 우월한 업체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가격이 아무리 싸도 품질에서 아직은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이 강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멕시코인들의 인식이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업체들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8면에 이어..

현행법상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한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 근무는 총선전부터 근로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산업계와 경영계로부터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여당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기

가 어려워진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가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당 정책 입안자로부터 발표된 해당 법안은 내년 중에는 반드시 통과 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에는 멕시코도 주 5일제 근무제로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야당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휴일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결국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절반에 불과한 점을 들어 우선 순위가 이 부분부터 해

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주 5일제 근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근로자들의 표심과 기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한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던 케레타로, 마약조직 "등지 틀었다"

멕시코 다른 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케레타로가 벌써 마약조직이 등지를 틈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옛그제 케레타로 시내 Los Cantaritos 라는 바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당국은 마약 조직간 혈육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케레타로는 마약자금의 도피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도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CJNG)와 마약 거래 통제에 대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려는 Cartel de Santa Rosa de Lima (CSRL)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군은 또한 '케레타로에 대한 범죄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 범죄 카르텔의 현지 두목을 확인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과나후아토에서 이주해 왔는데 "Los Hades"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케레타로를 기반으로 하려는 갱단들의 주 수익원은 마약 공급도 있지만, 일명 'huachicol'로 알려진 석유 송유관 절도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레타로 지역은 주변으로 석유 송유관이 많이 통과하는 곳으로



이들 송유관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케레타로는 전국의 다양한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안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부상했으며 불법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부동산과 비즈니스 부문에 투자하지만 대부분 돈세탁을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방법은 당국의 관심을 끌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외에도 미초아칸 주와 시날로아 주에서 합성 약물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최근 CSRL 갱단의 4개의 비밀 공장이 군 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마약 조직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기 위한 케레타로 국제공

항의 활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학살이 케레타로를 뒤흔들었다.

술집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이후 케레타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마우리시오 쿠리 주지사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이 지역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Queretaro는 Google, Microsoft 및 Amazon의 투자로 기술 부문의 성장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으나 결국 다른 많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갱단들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주 정부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마우리시오 쿠리(Mauricio Kuri) 주지사와 펠리페 페르난도 마시아스(Felipe Fernando Macías)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온전함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문제" 라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고 있다.

당국은 곧바로 도시 전역의 바, 클럽 및 혼잡한 장소에 대해 영구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차량 검문소와 무작위 검사 작전을 전개하고 089를 통해 익명 신고를 장려했다.

또한, 주류 판매 면허가 만료된 경우나 무허가로 운영한 El Meson del Mariachi 두 개의 상업 시설을 폐쇄 시키기도 했다.

비교적 경찰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케레타로는 주 방위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갱단 총격으로 술집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이번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주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화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타 도시와 다를바 없다"는 시선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면서 여론악화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Cell Phone: 55 5457 5254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취업비자 \$10,000
- ◆비자연장 \$5,000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국적변경 \$4,000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멕시코시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년 동안 38% 증가

교통 범칙금 적용, 사진 촬영 단속으로의 전환 등 멕시코시티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2명에서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52명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시티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는 18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2024년에는 같은 기간에 252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2019년 상반기 10,257명에서 같은 해 같은 기간 18,250명으로 78% 크게 늘어났다. 충돌, 차량에 치인 사람 및 기



타 도로 사고를 포함한 총 사고 건수는 35,216건에서 2024년 41,76건으로 17%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티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대해 사전 시험 없이 영구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Salud Justa와 같은 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 안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

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 권리는 국제 조약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 정책과 인프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Claudia Moreno 시민단체 대표 는 지적했다.

특히,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구 면허증'이라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운전자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2020년에만 사고, 부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다. 현재, 멕시코는 기술적인 차량 검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니

버스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연식이 아주 오래된 고물 차량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오토바이의 ABS 브레이크 처럼 간단한 것만으로도 수천 건의 사고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흥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부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점제도 그 중 하나다.

운전자에 대 10점부터 시작되며, 이 점수는 각 교통 위반에 대해 감점되는 방식인데 점수를 모두 감점 당했을 경우 교통교육을 받아야 면허가 갱신 되는 등 강화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멕시코 카르텔, 경비행기 동원 상대 조직에 폭탄투하

시날로아를 거점으로 하는 '로스 차피토스(Los Chapitos)' 조직이 경비행기를 동원 산악지역에 있는 상대 조직에 사제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를 동원한 조직은 로스 차피토스(Los Chapitos)로 미국으로 송환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우두머리 일명 엘차포(El chapo) 아들 들이다.

아버지가 체포되자 조직을 물려받은 이들은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견재한 영향력으로 시날로아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공조하면서 세력을 양분했던 아버지 세대의 갱단 우두머리인 삼바다를 엘차포의 아들 중 한 명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데려가 체포되면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강제 체포

되면서 아들은 차피토스 조직에 '배신자'로 규정하게 복수에 나서면서 이 지역은 피의 혈전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양측의 충돌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200명이 넘어서었다.

이번에 세스나 경비행기를 동원하여 공중에서 사제폭탄을 터트린 것은 로스 차피토스 조직으로 산악지역에 있는 삼바다 조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폭탄이 터지면서 주민들이 놀라 집밖으로 뛰쳐 나오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났고 이를 감지한 멕시코 공군은 헬기를 동원하여 경비행기를 추적했다.

상공에서 맞닥뜨린 공군은 착륙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는 경고로 세스나 비행기는 들판에 강제 착륙시켰다. 그러나, 착륙 고정에서 일어난 먼지가 시야를 가린 틈을 이용해 비행기를 남겨두고 갱단들은 모두 도주했다.

지난 10월 말, 두랑고



(Durango)의 산티아고 파파스퀴아로(Santiago Papasquiaro) 지방 자치 단체의 산악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두랑고 시에라 중심부에 있는 타마줄라(Tamazula)와 오캄포(Ocampo)에서 또다시 폭탄이 쏟아졌다.

멕시코 육군은 두 차례에 걸친 작전에서 비치크래프트 T-6 텍산 II 경공격기와 블랙호크 헬기의 지원을 받아 마약 비행기를

모두 강제 착륙시켜 압수했다.

이제 시날로아와 두랑고 사이의 북쪽 국경은 태평양 카르텔의 파벌 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침엽수와 참나무 숲으로 뒤덮인 골든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 로스 차피토스는 충돌이 발생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밀리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조직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 때, 우호적인 조직으로 각각 마약밀매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협조하던 두 조직은 돌이킬 수 없는 배신으로 이제 어느 한 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로스 차피토스에 비해 다른 갱단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삼바다 조직이 현 상태로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에서는 10~14세 소녀 9명이 "매일 아이를 낳는다"

2023년에만 멕시코 국내에서 10세~14세 여아가 3,134명 태어나는 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이 인구가 겪고 있는 성폭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록 그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절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소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중등학교에 다니지만 멕시코의 현실은 다르다.

2023년에는 해당 연령대의 소녀 3,000명 이상이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모가 10대(15~19세)인 출생을 더하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총 137,660건의 소녀와 청소년 임신이 등록됐다. 이는 멕시코 통계청인 Inegi의 공식 자료에 나타나 있다.

9년 전인 2015년에 이 문제는 지속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했다.

어머니가 10세에서 19세 사이에 태어난 출생 건수는 402,452건으로 멕시코 출생의 거의 5분의 1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중 2%, 즉 8,540명이 15세 미만 소녀였으며, 이 비율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아동 및 청소년 임신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는 26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청소년이 엄마가 되었다.

아동·청소년 임신의 발생은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발생하는 격차는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 2 단계를 거친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Enapea)은 소아 임신을 근절하고 그 숫자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비록, 지난 9년 동안 소녀와 청소년의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멕시코 전역에서 초기 임신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현실로 남아 있다.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Enapea)이 가동된 해에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 1만 명당 임신 비율은 15명이었다.

최신 수치(2023년)에 따르면 Colima, Guerrero, Yucatán, Tlaxcala와 같은 주에서는 임신률이 6명으로 떨어졌지만 Michoacán, Coahuila, Chihuahua, Puebla 및 Querétaro는 아직도 이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주로 남부 지역에서다.

출산율

관련 기관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 나라에서 26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청소년이 엄마가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차원에서 기회를 빼앗기도 한다. 이것은 세대 간(즉,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소녀와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불평등 상황의 결과다.

조직적인 폭력

2023년 10월 말, 케레타로 주 후이밀판(Huimilpan)에서 자연 유산을 겪은 14세 소녀의 사례는 멕시코 여성과 소녀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 학대, 여성혐오를 반영해 멕시코 사회를 격분시켰다.

주 검찰청의 정보에 따르면 에스메랄다(Esmeralda)는 자신보다 3살 많은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주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그녀를 범죄화 했다는 사실이다.

즉, 피해 청소년을 형사불량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2021년부터 멕시코 대법원(SCJN)은 유산을 한 여성은 감옥에 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6개 주에서만 낙태가 비범죄화 및 합법화 되었으며 케레타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주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강간이나 산모 또는 태아와 관련된 건강 문제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실은 에스메랄다(Esmeralda)와 같은 사례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연령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15년부터 2023년

까지 등록된 아동 임신의 50%에서 남성의 연령은 18~75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임신이 대부분의 경우 인구 집단에 행사되는 권력 남용의 산물이라는 데 동의한다. 더욱이 미성년자들은 성폭력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영구적인 차별

공중보건연구소(INS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면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19세 및 15세 미만 어린이의 산모 사망 위험도 각각 2배, 4배 증가한다고 한다. 공공 서비스에서 주어지는 관심은 차별과 학대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나쁜 소녀로 간주하는 도덕적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임신의 발생은 신체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가 줄어들어 그녀는 불안정한 고용과 급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성관계에 있는 소녀 또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다른 소녀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회적 대표자로 간주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소녀와 청소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비록 기록은 감소하고 있지만 모든 공공 정책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페소 가치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에 도착하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으로 달러 가치는 멕시코 페소에 대해 2% 이상 급등했고 캐나다 페소에 대해서는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통화는 월요일 LSEG 기준 가격에 비해 1.17% 하락한 달러

당 20.51단위에 거래되었다.

멕시코 페소는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으로 인해 11월 25일에 1.86% 상승하

여 달러당 20.65단위로 절정에 이르렀다.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Eligible Voters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Required Documents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